

## 정신과와 협진한 인후두 역류 질환 환자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정필상, 이상준, 이상훈, 윤경섭

---

**목적** : 인후두 역류질환 환자에서 기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인성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5년 1월 부터 2005년 5월까지 단국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여 인후두 역류 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중, 정신과에 협진이 의뢰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원시후두경으로 관찰한 이학적 소견과 식도조영술로 진단되었으며, 이 환자들의 정신과에서의 진단과 치료는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총 50명중 여자가 36명(72%), 남자가 14명(28%)이었으며, 나이는 25세부터 72세 까지 (평균 48.6세)분포하였다. 증상 발생 후 첫 내원시까지는 평균 9개월이었다. 총 32명이 식도조영술을 시행 받았으며, 정신과적 진단으로는 신체화 장애가 15명(30%), 우울증이 9명(18%), 기분 부전 장애가 7명(14%)등의 순이었다. 그밖에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건강 염려증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 방법으로 문진과 심리평가(5명,10%)를 하였으며, 치료로는 대부분이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용제 등 경구약물 투여였다.

**결론** :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동반되는 정신과적 질환으로는 신체화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동반된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